

초록번호 14-3

제 목	국 문	농촌 노인들의 인지장애와 일상생활 활동도와의 관련성		
	영 문	Association between Cognitive Impairment and ADL of the Elderly in Rural A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상규, 김석범, 강복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Sang-Kyu Kim, Seok-Beom Gib Kim, Pock-Soo Ka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김 상 규	
발표 형식	구연발표	발표 시간	10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b>1. 연구 목적</b></p> <p>이 연구는 현재 치매의 선별검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지기능검사와 일상생활 활동도를 측정하여 농촌노인들의 인지장애정도와 일상생활 활동도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서로 비교하여 추후 공공보건기관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우선순위 선정 등에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p> <p><b>2. 연구 방법</b></p> <p>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1개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1998년 2월부터 4월초까지 직접 면접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를 점검하고 보완하였고 설문내용에는 성, 연령, 배우자 유무, 동거가족 수, 교육정도, 종교, 의료보장형태 등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였다.</p> <p>인지기능검사는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MMSE-K)과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MMSE)으로 조사하였는데, MMSE-K는 총점 30점이며, 교육유무에 따른 교정을 하였으나 K-MMSE는 총점 30점이며, 교육유무에 따른 교정을 하지 않았다.</p> <p>일상생활 활동도는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활동도 측정도구인 Bristo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평가척도로 조사했는데,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도, 자기관리, 인지능력, 운동능력의 4개 항목 20개 문항의 일상생활 활동도(Activity of Daily Living, ADL)를 각 문항당 0-3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화 하였다.</p> <p>성별과 연령에 따른 인지기능검사 점수와 일상생활 활동도를 비교하였고, 인지기능검사 점수와 일상생활 활동도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p>				

### 3. 연구결과

인지기능검사 점수의 평균값은 두가지 검사 모두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MMSE-K점수에 의한 확정적 치매는 전체 노인에서 12.9%였고 남자 7.0%, 여자 16.9%로 여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인지기능검사 점수의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MMSE-K점수에 의한 확정적 치매가 남자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했다. 일상생활 활동도 점수는 성별에 따라서는 인지능력 항목에서만 차이가 있었고, 연령에 따라서는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도, 인지능력, 운동능력 등의 3개 항목과 전체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MSE-K와 K-MMSE의 두 가지 성적 모두는 일상생활 활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65-69세, 70-79세, 80세 이상의 세 연령군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지기능검사 점수와 일상생활 활동도 항목들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도, 자기관리, 인지능력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 4. 고찰

향후 공공보건조직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인지장애정도와 병행하여 일상생활 활동도를 고려하여야 치매의 임상적 측면뿐만 아니라 복지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인지기능검사 점수와 일상생활 활동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추후 지역사회 공공의료조직에서 치매노인을 관리할 때 그 대상자의 선정에서 인지장애 정도와 더불어 일상생활 활동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시에도 인지장애 정도와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맞는 일상생활 활동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도와 인지능력은 인지기능 검사만으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치아 및 구강관리, 위생, 목욕 및 샤워, 옷 입기, 화장실 사용, 음료수 마시기와 같은 자기관리와 걷기, 물건 옮기기 등의 운동 능력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게 표준화된 인지기능 검사와 병행해서 조사해야만 인지기능 장애를 가진 노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장애는 초기에는 보다 고차원적인 능력이 손실되고 진행될수록 자기관리능력, 일상생활 동작 등의 수행이 어려워지지만, 연령이 증가해도 일상생활 활동도와 인지장애가 심해지므로 추후 연령의 증가와 인지장애정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함께 고려한 조사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